01 / 목적지 편중

“SNS에서 본 곳은 왔는데,
그다음엔 어디로 가죠?”

02 / 동선의 단절

“시장도 공방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어서 둘러보죠?”

03 / 정보 탐색

“골목마다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검색해야 하나요?”

04 / 지역 경험 부족

“먹고 사진 찍는 것 말고,
신당에서만 할 건 없나요?”

05 / 이야기의 부재

“왜 지역 이름이 신당인가요?”

06 / 재방문 동기

“한 번 와 봤는데,
다시 올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 리서치의 니즈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설 발화 · 실제 인터뷰

PART 01. BACKGROUND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지만 모두가 같은 신당을 경험하지 않는다.



1. 다양한 지역 자원이 공존하는 신당

신당은 싸전거리, 떡볶이거리, 봉제 산업, 신당창작아케이드 등 다양한 자원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이 고르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2. 특정 장소에 집중되는 방문 행태

최근 '힙당동'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젊은 방문객은 SNS 속 맛집과 카페를 중심으로 방문하며 식음 소비 후 지역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



3. 방문 동선에서 소외되는 지역 자원

식음 중심의 방문으로 제조·창작·역사 자원은 방문 동선에서 소외되고, 방문객이 경험하는 신당의 모습도 제한된다.

현재 방문 동선

SNS에서 방문 → 특정 매장 방문 → 식음 소비 → 지역 이탈

PROBLEM **다양한 신당이 존재하지만, 방문자는 그중 일부만 경험 한다.**

PART 02. PROJECT DIRECTION

신당의 다양한 모습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계절마다 새로운 신당을 발견하는 사계절 페스티벌

봄에는 쌀, 여름에는 미신과 운, 가을에는 봉제·패턴,
겨울에는 창작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계절마다 새로운 신당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당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SPRING



봄 싸전거리

SUMMER



여름 미신 운

AUTUMN



가을 봉제 패턴

WI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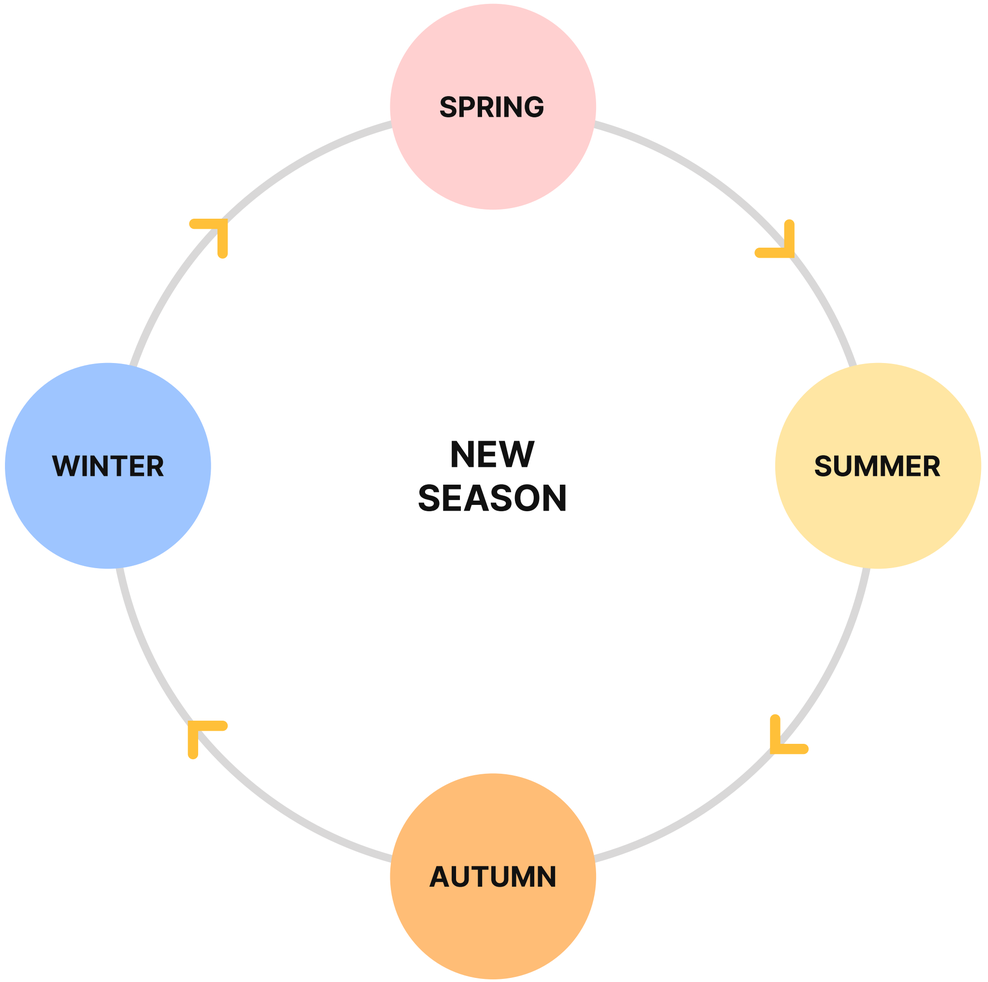
겨울 창작

PART 03. WHY FOUR SEASONS?

계절이 바뀌는 순간, 새로운 운을 맞이하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기나 계절이 바뀔 때,
운세·사주·타로 등을 찾곤 한다.**

이러한 점에서 착안해 계절의 변화를 새로운 운을 맞이하는 순간으로 바라보았다.
계절마다 새로운 운세와 지역 자원을 경험하는 페스티벌을 통해 신당을 다시 찾고, 매번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PART 04. FESTIVAL IDENTITY

신(神)나게 놀당(堂)

계절마다 새로운 운을 만나고, 신당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는 사계절 페스티벌

각 계절의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축제를 운영하며, ‘운’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 사계절의 경험을 하나로 연결한다.

SPRING

봄, 복을 담당

새 출발에 필요한 복

지원 자원

쌀·곡물 · 시장 생활용품 · 오래된 상점

주요 자원

고르고, 담고, 나누기

SUMMER

여름, 오싹하당

한여름 밤의 운명

지원 자원

미신, 떡볶이

주요 자원

운세, 골목, 탐험, 공포, 야장

AUTUMN

가을, 쌀쌀하당

단풍을 만끽하며 가을 즐기기

지원 자원

봉제 산업(원단/부자재)

주요 자원

봉제, 이색 체험, 아트, 창작

WINTER

겨울, 운을 밝히당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

지원 자원

신당아케이드, 예술, 창작

주요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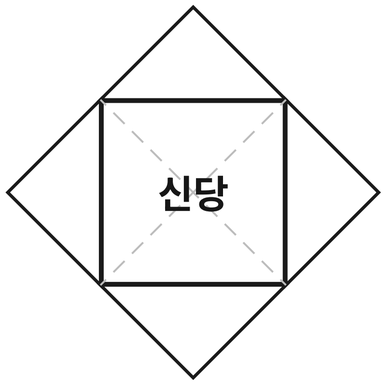
소원 오브제, 빛, 기록, 공동기원

KEY MESSAGE **네 번의 계절, 네 번의 방문, 네 가지 신당의 모습**

PART 05. VISUAL MOTIF — FOUR FOLDS OF SIND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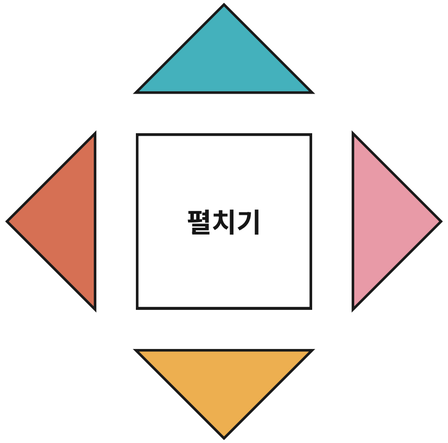
계절마다 새로운 신당을 펼치다.

동서남북 종이접기의 구조를 사계절의 그래픽 시스템으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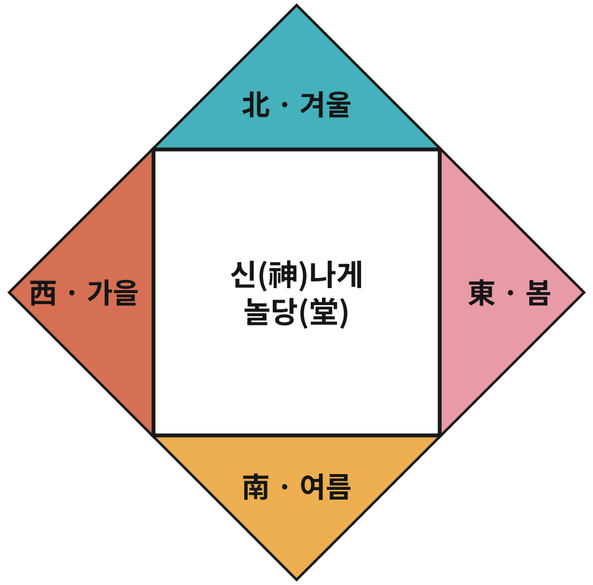
접힌 상태

하나의 신당



펼치는 행위

계절마다 한 면을 연다



펼쳐진 네 면

서로 다른 네 계절의 경험

면

동 · 봄

쌀·생활용품
고르고 담고 나누기

남 · 여름

미신·운·밤 골목
뽑고 탐험하기

서 · 가을

봉제·패턴
기획 예정

북 · 겨울

창작
기획 예정

KEY MESSAGE

접힌 하나의 신당이, 계절마다 다른 면으로 펼쳐진다.

PART 06. VISUAL SYSTEM

하나의 접기 구조를 여러 참여 장치로 확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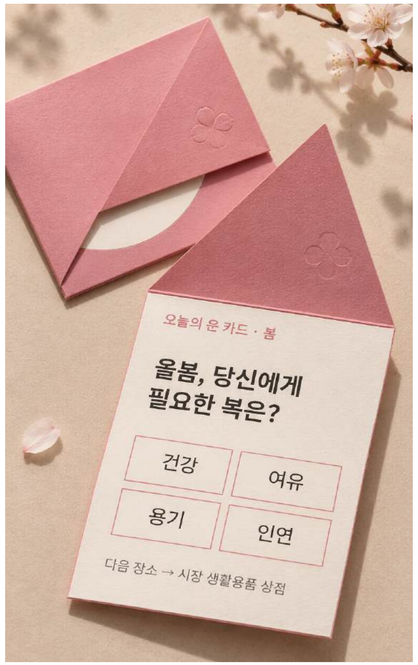
애코백

각 계절별로 동서남국에 맞는 애코백을 증정한다.



지도

동서남북 모양이고,
펼치면 장소와 경로가 보인다.



운 카드 · 안내

오른쪽 끝부분이 접힌 형태로,
공통 그래픽에 계절 색만 바꾼다



스탬프 · 복 토큰

방위 삼각형과 계절 색으로 참여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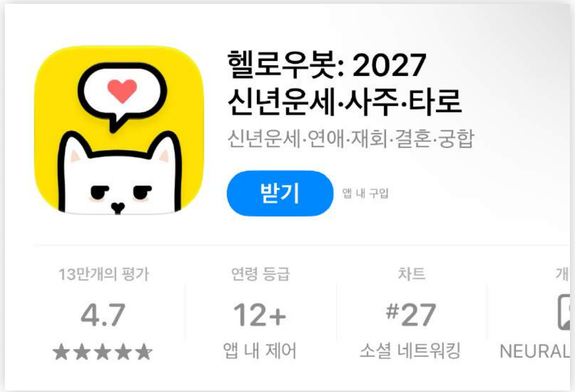
시즌 패스

네 계절 칸에 기록을 모은다

KEY MESSAGE **하나의 접기 구조로 연결된다.**

PART 07. FESTIVAL POTENTIAL

사람들은 이 페스티벌에 관심을 가질까?



1. 운세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

최근 운세·사주·타로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가볍게 즐기고 자신의 소망을 담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험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



2. 장소에 이야기를 부여하는 힘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와 같은 이야기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직접 방문해 경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3. 신당에 적용하는 도시 전설

신당의 지역적 이미지와 '운'이라는 주제를 연결해 하나의 도시 전설을 제안한다.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공유하며 확산시키는 축제의 이야기로 활용한다.

VIRAL STRATEGY

도시 전설에 대한 호기심 → 신당 방문 → 축제 참여 → 경험 공유 → 새로운 방문 유도

KEY MESSAGE **하나의 이야기가 방문의 이유가 되고, 방문자의 경험이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된다.**